

광주·전남 주택시장 끝없는 추락...쌓여가는 미분양아파트

5월 입주율 56.3%로 3개월 연속 하락...조사 이후 최저 입주전망지수 광주 68.7·전남 66.6...전국 상승세와 대비 매매가격 광주 5주·전남 2주 연속 하락 누적 -0.56% ↓

‘공공’ 열어붙은 광주·전남 아파트 시장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아파트 입주율은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조사 이래 최저이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주택업계가 내놓은 이달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도 전국 최저를 기록하는 등 쉽사리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광주를 제외한 수도권과 광역시의 입주 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 안팎에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아파트 입주율 50%대, 전국 최저...전국적인

상승세와 대비=6일 주택산업연구원 발표한 ‘6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자료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의 입주전망지수는 각각 68.7, 66.6로 전국평균(85)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낮았다. 특히 전국적으로 이달 입주전망지수는 전월보다 6포인트 올랐는데, 광주는 3.5포인트 하락했다. 광역시인 대구(86.3)와 울산(92.8), 부산(88.2)은 전월보다 각각 11.3포인트, 12.8포인트, 8.2포인트 상승한 것과 대비된다. 심지어 전북(90.9)도 9.7포인트, 충남도 91.6으로 전월보다 18.3포인트 급증했다.

광주·전남은 입주율에서도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달 광주·전남권의 아파트 입주율은 56.3%로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권 아파트 입주율은 지난 3월 65.9%에서 4월 60.7%로 내려앉더니 지난달 60% 선까지 무너졌다. 낮은 입주율을 반영하듯 지역 아파트 미분양 물량도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4월까지 광주의 미분양 주택은 1721세대로 전월 1286세대보다 435(33.8%)세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 4월까지 미분양 주택 3685세대를 기록하고 있다. 부산연은 광주·전남권 지역 내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기존 아파트보다 싸고, 고금리와 잔금대출의 어려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미입주 원인을 보면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43.1%로 가장 많았고, 잔금대출 미확보(23.5%), 세입자 미확보(21.6%) 등의 순이었다.

전남과 비교하면 세입자 미확보는 12.3%포인트 줄고, 잔금대출 미확보는 2.1%포인트 늘어 최근 전세 수요 증가와 전세가 상승으로 세입자 확보 어려움은 줄어든 반면 대출 규제 등으로 잔금 대출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찾는 사람 없어 가격도 하락...매매가격지수 연일 하락세=기존 아파트 처분이 어려워지고, 고금리로 대출 받는 걸 주저하게 되면서 신규, 구축을 가리지 않고 아파트 수요가 줄자, 매매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1주(6월 3일 기준) 광주의 아파트매매가격은 전(前)주 대비 0.01%, 전남은 0.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4월 5째 주에 보합세를 보이다, 5월 1주 하락(-0.02)으로 전환한 뒤, 2주 -0.04, 3주 -0.02, 4주 -0.02에 이어 이주에도 감소하면서 5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남도 전주(-0.02)에 이어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로써 광주는 올해 누적 -0.56%, 전남은 -0.47%를 기록했다. 전국을 기준으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1%) 대비 오르면서 3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한 것과 대비된다. 광주는 남구가 -0.01%로 가장 많은 하락폭을 보였고, 광산구(-0.01%)와 동구(-0.01%)도 감소했다. 반면 서구와 북구는 보합세를 보였다. 이주 광주와 전남은 전세 가격도 동일하게 0.1% 감소했다. 광주의 전세가격은 현재까지 누적 0.1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양에 나선 아파트의 평균 분양률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구축 아파트 매매도 현저히 줄어든 상황”이라며 “광주·전남 아파트 시장에 드리운 먹구름이 언제 가실 지는 예측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신세계 '이로X푸빌라' 콜라보 팝업 6일 광주신세계 본관 1층 '이로(IRO)' 팝업 매장에서 직원들이 '이로X푸빌라' 콜라보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16일까지 프랑스 컨템포러리 브랜드인 이로와 신세계 대표 캐릭터인 '푸빌라'의 콜라보 팝업 행사를 열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금호타이어 '2024년 단체교섭' 개시

노사관계자 16명 참석 상견례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는 지난 5일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2024년 단체교섭'을 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상견례에는 정일택 대표이사 사장과 박래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을 비롯해 노사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노사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금번 단체교섭이 금호타이어의 실적 개선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금호타이어는 전했다. 정일택 사장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

야 하는 속제가 있으며, 최고의 품질로서 그 기회를 만들어갔으면 한다"며 "노사는 운영공동체다 생각하고 교섭위원들이 좋은 합의안을 도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 1456억원으로 2014년 워크아웃 이후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3월 전기차용 타이어 'Ennov'를 출시하는 등 전기차 전용브랜드를 내세워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프리미엄 제품 생산 및 확대, 글로벌 유통 확대, 브랜드 인지도 강화 전략을 통해 흑자 기조를 이어 갈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보훈가족 후원물품 전달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지난 4일 광주지방보훈청에서 '보훈가족 사랑나눔' 행사를 갖고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행사는 순국선열과 호국영웅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보훈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 광주본부는 (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와 함께 광주지역에서 생산된 '빛나들 햇살' (10kg·100포)을 후원물품으로 전달하고 송고한 희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전달된 쌀은 범

농협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공헌단체 '(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의 참여로 성사돼, 의미를 더했다. 이현호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국가공공자 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농협 광주본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을 기약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스마트인재개발원 새 취업교육프로그램 론칭

AI·부스트 결합 '에이비리그'

스마트인재개발원은 새로운 취업교육프로그램 '에이비리그'를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에이비리그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분야별 교육과정을 분류, 프로그램별 특징을 중점적으로 소개해 수강 희망자들의 강의 선택과 진로 결정을 돕도록 설계됐다.

에이비리그는 AI와 부스트의 결합어로 '모든 분야를 인공지능과 융합하여 부스팅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미국 명문대 연합 아이비리그를 모티브로 스마트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교육 과정의 모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에이비리그의 자세한 내용은 에이비리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가능하다. 스마트인재개발원은 본점인 광주 동구점을 비

롯해 남구점과 목포·순천, 서울 서초와 흥대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오는 7월 중 전북 전주에도 캠퍼스를 개설할 예정이다. 스마트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새로운 브랜드 론칭을 통해 IT교육사업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며 IT교육 수강희망자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해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스마트인재개발원이 4차산업시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청년전문인력을 육성해 지역경제와 IT강국 코리아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중기중앙회 광전본부 광주·전남 중기인 대회

57명 지역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축제 '2024 전남광주 중소기업인대회'가 지난 5일 목포시 현대비아리안호텔에서 열렸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회장 임경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대통령표창 2명, 국무총리표창 1명 등 총 57명의 지역 중소기업 유공자가 포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표창에는 정국선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 협동조합 이사장과 서삼영 ㈜엘에스티 대표이사 수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국선 이사장은 2009년부터 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출자동차부품유통단지 조성과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삼영 대표이사는 자동차 부품 물류업종에서 JIS·JIT 공급방식을 도입해 '자동차 통합물류센터'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자동차부품 물류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은 "원자재 가격 폭등과 고물가·고금리의 3중고와 불합리한 노동정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수도권과 지역 경제양극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경제상황 속에서 지역경제의 큰 버팀목인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의미가 있다"며 "오늘 중소기업인들이 상을 받는 것은 다 함께 헌신적으로 노력한 가족과 직원분들 모두의 영광이다.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외와 정부, 지자체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육포데이' 소비촉진 행사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택)는 장흥축협,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전남도지부와 '육포데이' (6월 4일)를 맞아 농협하나로마트 남약점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육포 나눔행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행사는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육포 시식 행사와 함께 물레 돌리판 게임을 통한 경품 증정, 육포 할인판매 등 평소 접하기 힘든 최고 품질의 한우·한돈 육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내산 한우·한돈 육포를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 라이브커머스를 진행, 총 2000세트(2500만원 상당)를 조기 완판해, 네이버 푸드 카테고리 실시간 인기구매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김재은 장흥축협 조합장은 "장흥 육포는 저지방 고단백 부위를 원료로 만들어 식감이 부드럽고 맛은 고소해 어린이를 포함하여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간식으로 많은 애용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택 본부장은 "육포데이는 단순한 Day마케팅이 아니라 비선호 부위를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한 소비촉진운동으로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된다"며 "특히 장흥 한우·한돈 육포는 축협에서 직접 만드는 우수한 제품인 만큼 소비자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